http://dx.doi.org/10.5392/JKCA.2011.11.12.658

미디어의 종교보도를 위한 제언: TV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을 통해서

Media Coverage on Religion: TV documentary 〈God's Way Man's Way〉

이선영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Sun-Young Lee(sylee@handong.edu)

요약

이 연구는 TV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을 통해서 미디어가 종교 보도를 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았다. 2008년 서울방송에서 방영된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기독교 교리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명했다. 제작자들은 구원에 있어서 배타성을 보이는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권력으로 자리잡았다고 보았다. 공적 영역에서 영향력을 더해가는 개신교회와 그 활동들이 저널리즘 미디어의 비판 대상이 되는 것은 사회의 제반 다른 영역과 비교해볼 때 당연하다.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건드려 범개신교 단체의 항의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기독교의 교리가 신화에 근거를 둔다는 의견이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미디어가 종교의 교리를 보도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정통교리와 함께 다양한 관점으로 교리를 보도해야 한다. 또한 종교의 교리에 관한 부분은 어떠한 종교를 막론하고 과학과 이성의 잣대로 비판하기 보다는 성역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계몽주의 시대의 산물인 미디어가 신비의 영역을 내포하는 종교를 다룰 때 지켜야 할 기본 윤리를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 중심어 : | 종교보도 | TV 다큐멘터리 | 공정성 | 기독교 교리 |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some problems of media coverage of religion by analyzing a television documentary. The SBS-TV documentary "God's way Man's way" aired in 2008, critically presented the basic Christian doctrine. The producers of the program estimate that protestant churches in Korea have become an established power, which has influence on a societal and political level. Therefore the producers believe that they have the right to criticize that power, especially because its doctrine about salvation leads to serious conflict with other religions, for example, Islam. This program portrayed the doctrine of Jesus as a story borrowed from ancient myths. Consequently, there were harsh protests from the Korean Christian milieu, especially protestants. The author agrees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media to critically cover the activities of religious institutions and the behaviors of religious people in the civil society. However, if producers of a documentary want to introduce controversial doctrines of one religion to an audience, they should present the orthodox ones with alternatives or opposing on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objectivity and fairness of journalism. Since every religion has its mysterious doctrine that cannot be proven by science and reason, journalists should not criticize the sacred part of religion. This paper suggested some ethical points to the media, children of Enlightenment Age, when they cover the religion including its doctrine and mysterious parts.

■ keywords : | Religion Coverage | TV Documentary | Christian Doctrine | Fairness of Journalism |

접수번호 : #111104-003
접수일자 : 2011년 11월 04일
심사완료일 : 2011년 11월 24일
교신저자 : 이선영, e-mail : sylee@handong.edu

I. 들어가며

많은 지식인들은 근대화로 말미암아 종교의 사회적 중요성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견했으나 근대화가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20세기 후반에도 종교는 번성하고 있다. 또한 이 현상은 미디어를 통해 여실히 반영된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를 망라하고 각 종교는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그들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1]. 또한 종교와 종교인들은 사회의 크고 작은 사건들의 배후에 나타나는 종교의 영향력과 함께 저널리즘 미디어가 다루는 중요한 보도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 두 세기 동안 세속화 이론가들은 근대화된 북미와 유럽에서 종교의 종말을 예고했다. 근대화를 통해 세속화를 추구하던 사람들은 관용적이고 합리적인 세속 사회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과학주의와 합리주의가 비합리적 구습을 몰아내는 현상을 반겼다.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개인과 사회의 규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종교의 교리가 사라진 뒤에 나타날 황폐한 사회를 우려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깨고 전세계에서 종교 부활 현상이 나타났다[2]. 가장 근대화된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서도 종교적인 믿음과 행위와 종교 단체가 점점 더 활기를 띠고 있다[3].

근대화는 세계를 세속화시키기도 했지만 오히려 종교를 더 강화시키는 작용을 했다고 분석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종교에서 되찾았다.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낯선 군중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추구하게 되었으며 이런 사람들에게 종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시하는 새로운 윤리와 공동체를 제공했다. 다른 한편 건성으로 믿었던 신자들도 교리를 배우고 의식을 엄수하는 경험을 했다. 이런 가운데 교리와 종교 제도의 정화를 앞세우면서 근본주의운동이 부각되었다[4].

특히 근본주의는 역사적으로 세속화의 반작용으로 일어났다. 이는 서구 자본주의의 합리적이고 물질적인 면을 강조하는 경향과 반대로 영적이고 정신적인 면을 추구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소박하고 진지한 열망일 수도 있다[5]. 근본주의가 근대적 정치사회제도, 세속주의, 과학주의의 급속한 유입, 경제발전과 함께 나타난 혼돈의 경험, 정체성, 안정된 사회 구조의 상실에 대처하는 방식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인 근본주의의 부상은 세속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자기 방종에 대한 반작용이며 질서, 규율, 상부상조, 인간적 유대에 대한 긍정이다. 종교 집단은 국가 관료주의가 방치한 사회적 욕구를 채워준다[6].

종교는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서, 미디어를 연구하는 커뮤니케이션 학문에서 가장 경시되었던 분야였다[7]. 근대의 산물인 미디어도 종교와 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도하면서 발전한 근대 미디어는 종교를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 활동과 그 영향력이 정치 등의 공공 영역에서 그 가시성이 두드러지자 종교인과 종교는 자연스럽게 미디어에 등장하게 되었다.

종교 집단들도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거나 대응하고 있다. 특히 신흥 종교 집단들에 대한 한국 텔레비전의 보도를 보면 사회의 상징적 권력의 큰 힘을 절감한다. 그들은 텔레비전에서 인정을 받으면 자신들이 사회에서 자리잡기가 쉬워질 것으로 믿다가 그 기대가 깨어지면 과격한 반응도 불사한다[8]. 이런 종교계의 반응 때문에 종교 보도는 텔레비전에서 뿐 아니라 신문에서도 금기시하는 분야로 꼽힌다[9].

21세기 초 한국에서 종교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정부 요직 인사들을 발탁하면서 종교 편향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종교계의 정치 관여가 심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2007년 대선에서도 대형 교회 목회자와 보수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장로 대통령 만들기가 공공연히 진행되어 유명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는 등 교회의 정치 개입이 확산되었다. 또한 2004년부터 시작된 기독교 정당 운동은 지난 9월 20일에는 일부 보수 개신교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기독자유 민주당을 창당했다[10].

개신교회는 정치권과 함께 권력화되었다고 인식되어 언론의 중요한 감시 대상이 되었다. 한국일보가 2011년

3월 4일 자로 “종교의 정치 개입 수위 넘었다” 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그 일환으로 18대 재적 국회의원 (2008 ~ 2012 년) 의 종교를 조사한 결과, 개신교를 믿는 의원이 120명으로 전체 의원 중 41 % 에 달했다., 천주교를 믿는 의원은 72명 (24 %) 이었고 불교를 믿는 의원이 55명 (19 %) 으로 18대 국회의원 중 종교 인구가 84 %에 이르렀다. 한국 인구에서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을 합한 기독교인이 점하는 비율은 30 %인데 국회의원 내에서는 그 배가 넘는다 (65 %). 현직 대통령도 개신교회의 장로다.

또한 대형 교회의 여러 비리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고발되면서 제도권 종교에 대한 미디어의 비판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이 분야의 중요성을 보여주듯 한겨레신문에서는 종교 전문기자를 두고 있다. 개신교는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에서 볼 때 중요한 보도 대상이 되었다.

2007년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파견한 단기 선교사들이 탈레반 세력들에 납치된 사건은 온 나라와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가 되었다. 2007년 7월19일 아프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 신도 23명이 탈레반에 의해 납치됐으며, 이후 배형규 목사와 신도 한 사람이 살해됐고 나머지 21명은 억류 42일 만에 풀려났다[11]. 당시 정부의 외교력이 총동원되었고 탈레반에게 막대한 대금을 지불하고서야 이뤄졌다. 그 이후 개신교의 공격적인 선교는 언론과 일반인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그동안 저널리즘 미디어가 다룬 종교기사의 내용을 보면 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종교 집단이나 사이비 이단, 교회 조직 내 갈등에 대해, 혹은 종교 지도자를 사회윤리적인 잣대로 비판한 기사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서울방송 (SBS) 교양제작국에서 제작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은 기독교 교리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에 따른 갈등은 그 이전에 개별교회나 해당 종교 집단의 항의와는 다르게 범개신교 단체가 함께 대응하는 사태로 나타났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하 한기총) 는 “종교의 영역은 사회 다른 영역보다 특수한 면이 있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 존재한다” 며 “귀사의 방송계획은 종교자유의 본질에 대해 침해하고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방영되어서는 안 된다” 고 상영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국 언론인 노동조합 SBS 본부는 “한기총의 반론 요구는 거대 종교 권력이라고 해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언론을 옥죄는 행태” 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마지막 방송에서 한기총의 반론을 1분 50여초 동안 내보내며 뜨거웠던 논란을 일단 잠재우면서 방영되었다[12].

II.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서울방송 (SBS) 에서 다룬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4부작 <신의 길 인간의 길> 은 시사교양국 <SBS 스페셜> 팀에서 2년여의 계획과 1년에 걸쳐 제작하여 2008년 6월 말부터 3주에 걸쳐 방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를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보고, 이들에게 소통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을 권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다[13].

제작진은 종교적 배타주의에 내재한 폭력성을 경계하라는 것이 <신의 길 인간의 길> 의 의도이며,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계기는 2007년 샘물교회 교인들의 피랍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슬림 탈레반 전사와 배형규 목사의 만남이 왜 평화가 아닌 죽음으로 끝맺을 수 밖에 없었는가? 이와 같은 불행은 종교가 갖고 있는 독선과 아집, 그로 인한 소통과 관용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 시사회에서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이 공개되자, 보수 개신교계는 크게 반발하며 예정된 방송의 취소를 요구했다. 논란 속에서 2008년 6월 29일 (토) 밤 11시 20분에 방송된 1부는 심야방송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12.3 % (TNS 기준) 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제작진은 7월 12일 (토) 과 19일 (토) 밤에 방송하기로 했던 3, 4부를 12일과 13일 연속 방영하고 4부 앞부분에는 한기총의 반론을 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개신교의 반발은 방송이 종료된 후에도 한동안 지속되었다. 한기총 뿐 아니라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성명을

통해 SBS 측에 “기독교 신학에 대한 폭넓은 접근없이 일부 편향된 입장만을 방영함으로써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 호도했다” 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커다란 불신을 불러일으키며 기독교인의 신앙고백을 폄하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 또한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사실에 입각한 보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지상파 방송이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세계 역사와 문명의 동인이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신화화시키면서 그 진의를 왜곡하였다는 사실은 언론의 횡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14].

한국교회 언론회도 서울방송에 공문을 보내 “방송내용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역사적 예수를 신화적 인물로 설정하고 있고, 기독교 6천년 역사를 기원전 8세기에 이란 지역에 있었던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기독교에 관한 모든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규명된 것” 이라며 방송 중지를 요청했다[15]. 또한 한국교회 언론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공문을 보내 특히 제 1부 “예수는 신의 아들인가?” 의 방영분에 대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SBS가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온 기독교의 본질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보인다며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16].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한국 PD 연합회에서 ‘이달의 PD 상’ TV시사교양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미디어와 개신교 단체간의 큰 인식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신의 길 인간의 길> 사태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로 한국교회 SBS 사태대책 위원회와 SBS가 서로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일단락 지워졌다. SBS는 방송의 공익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심려와 고통을 겪은 기독교인들에게, 대책위는 SBS를 상대로 비방광고를 내고 시청 거부 운동 등을 벌인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17].

이 다큐멘터리의 방영을 통해 나타난 미디어와 종교계의 갈등을 보면서 두 입장의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볼 수 있다. 종교는 합리적인 잣대로 비판할 수 있는 일반 보도의 대상과는 다르게 교리의 성스러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저널리즘 미디어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회 각 부분의 권력을 견제한다. 그러나 종교의 다룰 때 그 비판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각 종교의 핵심 교리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저널리즘 미디어는 어떤 범위에서 종교를 다룰 수 있는가?
2. 그 범위 안에 종교의 성스러운 교리는 포함될 수 있는가?
3. 종교의 교리가 다뤄질 수 있다면 서울방송의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 의 경우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 연구는 <신의 길 인간의 길>에 나타난 내러티브의 논지를 공정성의 관점에서 비춰보고 미디어가 종교를 다룰 수 있는 바람직한 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서사분석을 택했다. 서사분석은 텔레비전 텍스트 연구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는 접근방법의 하나로 이야기 구조와 담화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인 4부작 프로그램을 이야기 구조로 분석했다. 이야기 구조 분석은 등장 인물의 유형과 그들의 발화 내용을 분석한 뒤 일종의 계열체 분석으로서 이항대립을 찾아내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했다.

Ⅲ. 맥락 연구

1. 한국의 종교

뒤르카임(Durkeim)은 종교를 “성스러움, 즉 거룩하고 금지된 것에 대한 믿음과 실천의 통일된 체계” 라고 정의했고, 타일러(Tylor)는 이를 “영적인 존재(spiritual being) 에 대한 믿음” 이라고 풀이했다[18]. 또한, 종교는 객관적이고 외적이며, 조직체의 행동 규범을 이끄는 규칙, 믿음 혹은 규범을 실천하거나 이에 헌신하는 것으로 규정되기도 한다[19].

20세기 후반 세계화와 정보화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한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평범한 것보다는 극단적인 것을 찾고 종교적 차원에서는 보수적인 근본주의나 사적인 신비경험에 빠지기 쉽다. 종교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종교의 부흥현상은 인간의 삶이 서구문명에서 비롯된 합리적 과학과 테크놀로지만으로 좁게 정의되는 것에 대한 거부라고 볼 수 있다[20].

종교란 구원과 진리의 문제에서 대답을 주는 절대적인 신념체계라 할 수 있다. 그 구원과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종교의 사명에 해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며 그 절대 가치를 전파하는 것은 사랑과 자비의 표현이다[21].

그러나 특정 종교가 다른 지역에 전파될 때, 그 곳에 이미 종교가 존재할 경우 다른 종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 종교 갈등이 정치적, 경제적 요인과 맞물려 빚어지면 문명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종교의 확산 과정에서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종교가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힘을 배경으로 다른 지역으로 들어간다면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22].

종교, 특히 보편적 세계관과 유일신 믿음을 동시에 가진 종교는 선교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넓혀나간다.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 종교들은 선교의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타종교나 타문화에 대해 배타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이기까지 해서, 그 동안 종교 갈등, 혹은 문화갈등을 야기해 왔다. 오늘날에는 특히 개신교가 이 문제에 가장 깊이 관계되어 있다.

1884년 미국으로부터 전해진 개신교는 한국에서 근대 선교 역사상 일찍이 보지 못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주요 이유로는 불교, 유교 등 재래 종교가 민심을 힘있게 차지하지 못했던 점, 정치적으로는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갖춰져 있었다는 점, 또 민족 심리가 본래부터 종교적이었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23].

2005년 한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남한 인구 4천7백만명 중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한국인은 약 2천5백만 명으로 남한 인구의 반 이상 종교인이다. 그 중에 불교 인구는 약 1천1백만 명이고, 개신교 인구는 8백6십만 명, 천주교인은 5백만 명, 유교는 10만 명, 원불교인은 13만여 명에 이른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불교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단일 종교로는 불교인이 약 20 %를 점유하여 가장 많지만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한 기독교 신자는 전체 인구의 30 %에 다가서고 있다[24]. 1950년 기독교 신자는 전체인구의 1~3 % 수준이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한의 기독교인은 인구의 삼분지 일에 육박하게 된다. 또한 현재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개신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해외에 파견하는 나라다.

2. 종교와 미디어

한국 신문이 종교 기사를 문화면에서 본격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때는 1970년대 초반부터이다. 1960년대 후반부에 들어서자 문화부에 종교 담당기자가 나타났다. 그러나 종교기사가 문화면의 머릿기사나 대형 심층보도 기사로 실리는 예는 거의 없었으며, 종교 집회나 행사를 알리는 단신 정도가 고작이었다. 신문이 종교 문제 등을 중요한 사회 현상으로 보도하게 된 계기는 유신과 폭발적인 교세팽창을 수반한 종교 붐이 결정적이었다. 1970년대 중반에는 각 신문사가 거의 주 1회씩 문화면을 전면 종교면으로 제작하기도 했다. 그 이후 중앙일간지의 종교 보도는 계속되고 있으나, 지면 할애는 상당히 축소되었다[25].

일반적으로 종교 보도는 공적 영역과 관계를 맺는 집단적이고 제도적인 측면만 다루었다. 그러다가 1990년에 들어서자 한국에서는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서 종교 문제를 보도하는 일이 부쩍 늘어났다. 이는 1980년대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종교 부흥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 미국 보수주의 개신교의 득세와 정치개입, 중동-발칸반도-북아일랜드-인도에서의 종교 분쟁 등이 보도되었다.

이런 일반적인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정교 분리 원칙과 신앙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종교 집단의 이기주의가 커졌다. 이에 계몽주의적 합리성을 내세운 미디어는 최소한의 법 규범과 윤리성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종교 집단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

러나 이단으로 불리는 집단이나 신흥 종교집단을 다룬 프로그램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반면, 정통 집단을 다룬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었다는 평을 받았다. 이는 정통 집단 내부에 이미 비판 세력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반이 구축된 정통 집단에게는 미디어의 고발이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다[26].

그 동안 독립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종교와 미디어 두 영역 사이의 교차점이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며, 미국과 유럽 등 서구사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고될 뿐 아니라 그 교차점도 다양화되고 있다[27].

그 동안 미디어를 연구하는 커뮤니케이션 학문에서 종교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종교를 다룰 때는 특별한 사상이나 세계관을 옹호해야 한다거나 혹은 신학을 연구해야 한다는 압박감 또는 종교같이 복잡한 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연구자들에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 이 분야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과 이슈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버렸다[28].

제임스 캐리가 "미디어와 종교" 라는 저널의 창간사에서 밝혔듯이 종교는 커뮤니케이션 학문 분야에서 가장 경시되어 왔다. 종교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현상으로서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과 인문과학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그 연구가 이뤄져 왔지만,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20세기 후반 종교의 부활현상이 나타나고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학문 분야에서 여러 책과 논문이 출간되고 학회 등이 꾸준히 열리면서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행해진 연구를 살펴보면, 스튜어트 후버가 "미디어, 문화와 종교"분야의 초석을 다져놨고 쥬디트 부덴바움은 저널리즘과 대중매체 연구 분야에서 종교 뉴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했으며, 또한 다니엘스타우트와 함께 실증적인 수용자 연구를 축적했다.

한국에서도 종교와 미디어 연구가 누적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종교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최창섭의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총론" (1978) 과 "교회와 미디어 각론" (1979) 이다. 2004년 한국 언론학회에서는 종교와 커뮤니케이션 연구분과를 설립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문혜성(2008)이 교육분야에서, 윤선희(2007) 는 미디어 수용과 해독에 관한 논문을, 이성민 & 강명구(2007) 는 종교미디어의 정치성에 관한 논문을 내었다. 박진규(2009, 2008, 2007)는 각각 종교와 신비주의를 소재로 한 일일드라마의 기획과 제작 : "코드 파괴 시리즈"의 사례연구와 2008년 문제가 된 SBS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썼고 2009년에 "미디어, 종교 그리고 문화" 라는 논문을 통해 이 분야에 초석을 세웠다.

종교와 미디어의 교차점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접촉점이 제시된다. 첫째, 종교 기관이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하고 종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미디어와 미디어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저널리즘 미디어가 공적 영역에 나타난 종교를 보도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하며, 셋째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가 픽션, 오락물, 대중음악 등에서 제도권 종교뿐 아니라 종교의 영성, 초월성, 신화, 초자연성 등을 다루는 것을 말한다[29].

3. PD 저널리즘과 공정성

PD 저널리즘은 탐사보도의 영역에 속해 있다. 탐사보도는 제작진이 독립적인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사실에 파고 들어 보도하는 양식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탐사보도는 사회변화를 유도하는 촉매역할을 해왔다. PD 저널리즘은 기계적인 객관주의 관행에서 탈피해 심층취재를 통한 차별화된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독특한 전문영역을 개척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한다[30].

탐사보도는 한국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부조리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에까지 그 취재 분야가 확대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방송 내용과 관련된 민사소송이나 방송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일이 증가했다[31].

언론계와 학계에서 공정성은 저널리즘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한국 언론 역사에서 공정성 문제는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로부터 오늘날의 정부에 이르기

까지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과거의 공정성 논란은 언론이 정치권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데서 주로 야기되었지만 현재는 정치적 의제뿐 아니라 그 범위가 사회, 문화 영역에까지 확대되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PD 저널리즘은 방송 저널리즘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의 핵심에 와 있다. 기존 방송 저널리즘과 구별되는 PD 저널리즘은 사실 이면의 진실에 대한 접근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제작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되어 오히려 진실을 호도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다[32].

탐사 저널리즘의 한 형태인 PD 저널리즘 역시 저널리즘의 객관보도 원칙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PD 저널리즘은 시사 다큐멘터리의 형태를 띤다. 시사 다큐멘터리가 시청자들에게 호소력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다큐멘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성을 토대로 재현된 영상이기 때문이다. TV 매체에 재현되는 영상들이 사실을 소재로 한다는 믿음과 기대에서 시청자들은 화면에 재현되는 것들을 믿는다[33].

4. 공정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뉴스 영상의 공공성은 방송의 공적 책임에 근거한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의하면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방송은 논쟁 중인 주요 공공문제에 관해 “제약없고 활발한 그리고 광범위한” 토론의 광장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이러한 토론은 국민의 이익과 양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반대의견, 소수의견도 균형있게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조건으로 언론의 자율성, 균형성, 다양성을 꼽고 있다[34].

방송의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작자는 최선을 다해 사실 관련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진실에 근접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첫째 방송은 쟁점 사안에 관해서 갈등 당사자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 둘째 갈등 당사자들을 지지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에게도 공정해야 한다. 셋째 방송은 특정 쟁점에 대해 의견을 가진 시민뿐 아니라 아직 의견을 갖지 못한 시민에게도 공정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방송을 통해 사회문제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숙고한 시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정파적 매체들에 의해 여러 조각으로 분화된 작은 공론장들 (mini-public spheres)을 하나의 통합적 공론장으로 통합시켜야 할 사회적 책임을 띠고 있다[35].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서도 방송의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공영방송의 원칙이다. 이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고 일정한 외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규제는 언론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구현된다. 두 나라도 역시 방송이 공통적으로 공론장으로 기능해주기를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공통 규칙의 정립과 외부 규제기구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외부기관의 감독활동이 제재보다는 사전협의와 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점이다[36].

저널리즘 미디어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정성과 객관성 가운데 공정성은 균형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객관성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객관성의 양면가치적 한계를 뛰어넘는 의미로 간주되기도 한다[37]. 객관성은 미디어 기관이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배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원칙을 지키고 특별한 태도를 견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 원칙은 첫째 취재 대상에게서 거리를 두는 것과 중립성을 지키는 것, 즉 주관성이나 개인적인 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논쟁 가운데서 누구의 편을 들거나 편견을 보여서도 안 된다. 세 번째로 객관성은 철저하게 정확해야 하며 여타의 진리기준 (적합성, 온전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38].

피그도르(Figdor) 는 객관성에 사실적 정확성과 정당화된(justified) 해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적 정확성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당화된 해석은 객관적 편집 판단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구성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누가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 위에 세워져서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진술을 말한다[39].

스웨덴 방송국에서 나타난 객관성을 연구한 웨스터슈탈(1983)에 의하면 정보의 사실성과 함께 가치도 다루어야 한다. 사실성에도 평가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성은 우선 정보원으로부터 확인

될 수 있는 사건이나 진술을 다루는 보도가 논평으로부터 자유롭거나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성은 다른 진실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즉 어떤 서술에 대해서 완전할 것, 정확할 것, 또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오도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인 관련성의 의미는 수용자나 사회에 의미있는 사실이나 사건을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원리로 선택하는 것이다. 웨스터슈탈의 도식을 보면 객관성이 완전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성이라는 요소가 더 추가된다. 또한 불편부당성이란 중립적 태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상반되는 해석이나 관점이 존재할 때는 동등하거나 비례적인 시간/공간/강조의 할애라는 균형잡힌 조합을 통해서, 그리고 중립적으로 제시해야 한다[40].

물론 객관성이란 개념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객관성의 정의부터 모든 저널리스트들이 다 다르게 내린다. 그래서인지 미국 전문기자회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는 객관성이란 단어를 그들의 문서에서 빼버렸다. 스테판 베리 (Stephen Berry)는 순수한 객관성이란 어떤 저널리스트도 달성할 수 없는 '이상'이지만 그것에 대한 추구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41]. 아무도 모든 미디어가 수용자를 위해 아주 진지한 주제에 관해 완전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또한 객관성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훌륭하다거나 심지어는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모두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리히텐베르그 (Lichtenberg) 는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려고 목표를 정한 만큼 객관성의 가능성이나 그 가치를 가정하지 않고는 그 목표가 진행이 될 수 없다는 주장했다[42].

Ⅳ. 다큐멘터리의 서사 분석

1. "예수는 과연 신의 아들인가?" : 예수의 기적은 고대 신화의 재구성? 가공인물?

제 1부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예수의 신성을 문제로 삼았다.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표상으로는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개신교 신자들, 거리의 전도사, 선교로 인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샘물교회 교인들을 보여준다. 반면 예수의 역사적 존재성이나 신성을 부인하는 집단의 표상으로는 학자들이다. 이들은 책이 가득한 방에서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역사 문헌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논지를 편다.

표 1. 1부 "예수는 과연 신의 아들인가?" 서사 분석

등장 인물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여신도들, 길거리 전도자	티모시 프리크(작가), 로버트 프라이스(학자), 배철현(교수)	게자 버메스(교수), 존 도미닉 크로산(교수)
유형	– 인간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사람들	–예수의 역사적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발화 내용	–기복신앙 –기독교의 절대성	–고대신화와 예수 관련 이야기의 유사성을 들어 예수의 허구성을 설명	–예수의 역사적 실재 –후대의 예수 신격화
이항 대립 구조	–예수의 신성을 믿는 사람들 vs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신도들 vs 차분하게 앉아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학자들		

1.1 등장인물의 유형과 발화내용 분석

등장인물은 교회에서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여신도, 거리의 전도자, 티모시 프리크 (작가), 로버트 프라이스 (학자), 배철현 (교수), 게자 버메스 (교수), 존 도미닉 크로산 (교수) 등이다.

첫째 유형은 예수의 신성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들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날 교회에 모여 가슴을 치며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들 중에 한 여신도가 기도하는 이유는 자녀의 수능시험 때문이라고 밝힌다. 여기에서 내레이터가 등장하여 차분한 목소리로 이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것은 자식의 성적을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그 외에 길거리 전도자는 앵무새처럼 "예수 천국"을 외친다.

둘째 유형의 사람으로는 <예수는 신화다> 의 저자인 티모시 프리크이다. 그는 예수의 기적이나 부활은 고대 신화가 유대적 배경에서 재구성된 것이라고 말한다. 다신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연구하는 프리크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도 삶과 죽음, 부활에 관한 얘기를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 종교학자 로버트 프라이스 (성경 비평연구소)는 예수가 AD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나타난 몇 명의 혁명적인 인물들을 합쳐 만든 가공인물이라고 강조한다. 예수의 탄생과 성경 기록은 여러 신화들과 비교가 되기도 한다.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는 배철현 교수 (서울대학교 종교학과)가 기원전 1-2세기에 나타났다고 알려진 미트라스가 여러 공통점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셋째 유형의 사람으로는 게자버메스 교수 (옥스퍼드대 유대학) 가 <유대고대사> (요세프스, AD 93) 의 기록을 들어 예수가 실재 인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메시아도 신적인 존재도 아니었다고 덧붙인다. 존 도미닉 크로산 교수 (미성서학회 역사적 예수 연구분과 위원장) 도 예수의 존재를 주장하며 역사책 <요세푸스>와 <타키투스>를 증거로 들었다. 그는 인간 예수가 신격화되었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설은 비유라고 주장했다.

1.2 이항대립 분석

예수의 신성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의 역사적 존재 자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예수의 신성을 믿는 집단은 가슴을 치며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개신교인들, 온몸에 붉은 물감을 바르고 예수 수난을 재현하는 사람들, "예수 천국"만을 앵무새처럼 외쳐대는거리의 전도사와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동료의 영정사진을 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샘물교회 신자들로 나타난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의 신성을 믿지 않거나 존재 자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학자 혹은 교수들로 차분하게 서재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2. "무함마드, 예수를 만나다" : 이슬람교의 예수 ?

제 2부에서는 코란이 말하는 예수를 소개하면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왜 이슬람 교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는지, 또 이슬람 교인들이 왜 기독교 선교사들을 그들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는지 설명한다.

표 2. 2부 "무함마드, 예수를 만나다" 서사 분석

등장 인물	조세프 아크라스 (시리아정교회 신부)	나데브 텔레브자데 (이란 영화감독)	배철현 (교수)	찰스 킴볼 (교수)
유형	예수의 십자가상의 죽음에 대해 얘기한 사람들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충돌 가능성을 논하는 사람들	
발화 내용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된 후 십자가 죽음을 교리로 제정	예수의 신성과 십자가상의 죽음을 부인	비폭력과 사랑을 강조한 예수와 이상공동체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무하마드	단순 직선적인 이슬람 종교가 교인들을 단합시킨다고 설명
이항대립 구조	-가장 성스러운 선지자 예수 vs 마지막 선지자 모하마드 -예수의 신성을 믿고 십자가상의 죽음을 인정하는 기독교 vs 예수의 신성을 믿지 않고 십자가상의 죽음도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교 -비폭력과 사랑을 강조한 예수 vs 전쟁도 불사하는 종교지도자이자 정치가인 무하마드 -살해당한 샘물교회 선교사들 vs 끝까지 싸우는 탈레반			

2.1 등장인물의 유형과 발화 내용 분석

이란 영화감독, 시리아 정교회 신부,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웨이크포레스트대 교수, 탈레반 등이다.

내레이터는 코란에 예수는 신이 선택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며, 병든 자를 살리는 등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밝힌다. 예수는 예언자일 뿐 신의 아들은 아니며 십자가에 못박히지도 않았다는 코란을 인용한다. 나데브 텔레브자데(이란 영화감독)는 이슬람교인에게 예수는 가장 성스러운 선지자지만 신의 아들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조세프 아크라스 (시리아 정교회 신부)는 일부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들은 예수 대신에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못박혔다고 믿는다. 그러나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예수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통합된 교리로 제정했다고 한다.

배철현 교수도 코란에서는 예수를 무하마드와 동격으로 보며 예수를 결코 신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이슬람교가 기독교인의 선교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의 신성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그는 무하마드가 비폭력과 사랑을 강조한 예수와 다르게 이 땅에 이상 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가였다고 설명한다.

찰스 킴불 교수 (웨이크포레스트 대학) 는 단순직선적인 이슬람 종교가 단합하기 쉬운 종교라고 밝힌다. 이어서 화면은 탈레반의 본거지인 파키스탄의 파슈툰 지역을 소개한다. 탈레반은 코란의 가르침을 따라 이슬람이 아닌 사람이 공격하면 물러서지 말고 맞서 끝까지 싸운다. 내레이터는 이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선교사들을 살해한 이유는 그들이 이슬람 공동체를 위협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2 이항 대립 분석

기독교에서 보는 예수와 이슬람교에서 보는 예수가 이항대립으로 나타난다. 이슬람교에서 보는 예수는 모하마드와 동격으로 한 예언자 일 뿐 신의 아들이 아니며 십자가에 못박히지 않았다. 반면 기독교에서 보는 예수는 신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슬람교에서 보는 예수와 모하마드를 이항대립 구도로 볼 수 있다. 예수는 비폭력과 사랑을 강조했고 이 세상의 정치가는 아닌 반면 무하마드는 이 땅에 이상 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가였다.

이슬람 종교와 기독교를 이항 대립으로 볼 수도 있다. 기독교는 용서하는 종교이며 사랑과 양보를 미덕으로 알지만 이슬람교는 이슬람이 아닌 사람이 공격하면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 탈레반과 샘물교회 선교사도 이항대립 구조 속에서 볼 수 있다.

3. “남태평양의 붉은 십자가” : 인간의 종교성

제 3부에서는 인간이면 공통적으로 가진 종교성을 소개한다. 타나섬의 종교적 전통을 말살하면서 기독교를 전파했던 대영제국 선교의 문제점을 설명한다. 영국은 전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했지만 오늘날 젊은 영국인들은 기독교를 버리고 그들이 억압했던 불교와 샤마니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한 인구의 75 %가 기독교인이라는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 보다 현저히 높은 살인률 및 수감률을 기록한다. 이를 연구한 연구자는 종교가 사회의 건강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결론짓는다.

표 3. 3부 “남태평양의 붉은 십자가” 서사 분석

등장 인물	존 프럼 마을 추장과 주민들	로클리 (영국주교), 마크타바니 (연구원), 레이몬드 린드스트롬(교수)	원시 종교를 믿는 영국인들, 불교를 믿는 영국인 등	리차드 와이크(연구원), 그레고리 폴(저널리스트)
유형	기독교 선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		기독교의 대안으로서 다른 종교를 찾는 사람들	종교가 사회의 부나 건강과 무관함을 설명하는 사람들
발화 내용	기독교의 억압적인 선교방식		–개인의 필요에 따른 종교 선택 –억압, 통제 뒤 따르는 종교 거부	–부유한 국가일수록 종교적 성향 저조 –사회건강성은 종교적 원인과 무관
이항 대립 구조	–종교적 성향이 강한 국가 (빈국) vs 종교적 성향이 약한 국가 (부국) –(타나섬 사람들) 억압하는 기독교 vs 해방시키는 존프럼교 –전통 종교 vs 기독교 –기독교 vs 불교 vs 샤마니즘 –종교에 매달림 vs 종교를 쇼핑함			

3.1 등장인물의 유형과 발화 내용 분석

등장 인물은 존프럼 마을의 추장 아이작과 주민들, 대영 제국의 선교사였던 로클리프 주교,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연구원, 미국인 인류학과 교수, 영국의 젊은이들, 불교신자인 영국인, 퓨 리서치 센터 연구원, 저널리스트 등이다.

타나섬 (바누아투 공화국) 에 위치한 존프럼 (John Frum) 마을의 추장 아이작과 마을 주민들은 2차 대전 직전 존 프럼이라는 한 미국인이 마을 지도자의 꿈에 나타나 기독교를 경계하고 전통을 지키라는 계시를 내렸다고 말한다. 이후 타나섬 주민들은 존 프럼을 메시아로 예배하고 그가 재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해 마크 타바니(프랑스 국립과학 연구소 연구원)는 타나섬 사람들의 존프럼 신앙에 대해 기독교의 예수와 비교하며 같은 종류의 종교 현상으로 설명했다.

32년 동안 타나섬에서 선교를 했던 드렉 로클리프(영국 성공회 주교)는 당시 장로교가 타나섬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그들의 전통을 금지했다고 증언했다. 레이몬드 린드스트롬 (미국 털사대학 인류학과 교수) 도 기독교 선교사들이 카바라는 전통음료를 마시고 무리를 지어 춤추는 타나섬의 전통을 싫어했으며 이를 미신이라며 억압했다고 밝힌다.

이후 취재진은 과거에 강압적인 선교를 했던 영국에서 현재는 교인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밝힌다. 2005년에는 47,635개의 교회당 중에 1,315개의 교회가 용도 변경을 했다. 내레이터는 기존 종교인 기독교 대신에 샤머니즘과 불교에 영국의 젊은이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전한다. 화면은 샤머니즘 의식을 치르는 일부 젊은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그들은 영국 선교사들이 원주민에 대한 선교활동을 했던 사실을 사과하며, 다른 나라에 가서 기독교를 믿으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다. 또한 예수는 좋은 선생이며 샤먼이며, 구원은 신의 의지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이들은 신이라는 단어는 억압, 통제, 교리 등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불교신자가 된 한 영국인은 21세기에는 대부분의 영국인들이 더 이상 종교에 매달리지 않으며, 다만 물건을 쇼핑하듯 필요에 따라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내레이터는 이러한 영국과 대조적으로 미국은 인구의 75%가 기독교를 믿으며, 전역에 대형교회들이 많다고 전한다. 취재진은 레슬링 교회, 자동차 전용 교회 등 예배 장소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미국의 교회들을 방문한다. 내레이터는 영국의 교회당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는 것과 대조적으로 어떤 미국 교회는 나이트 클럽 같은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설명했다.

리차드 와이크(퓨 리서치센터 최고 연구원)는 국가의 부와 종교성은 매우 뚜렷한 관계를 보이는데 부유한 국가일수록 덜 종교적이라고 전했다. 이는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세속적인 가치들이 중요해지고 개인주의가 더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내레이터는 미국이 상당히 경쟁적인 종교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소개한다.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지만 신도수가 줄은 영국과 예배 형식을 파격적으로 바꿔 신도들을 교회로 끌어들인 미국 중 어느 사회가 더 건강한지에 대해서 그레고리 폴(저널리스트)은 연구를 했다. 그는 종교적인 국가일수록 사회가 더 건강할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한다. 그의 연구에서 미국의 살인률이 다른 선진국보다 평균 4배가 높으며, 그 수감률도 다른 유럽국가나 캐나다, 호주보다 12배나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그는 사회의 건강은 종교적인 요인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추론했다.

3.2 이항 대립 분석

타나섬 주민들에게 억압적인 기독교를 전파한 영국 선교사와 그 섬 주민들을 그 억압에서 해방시킨 존프럼은 대립적 관계에 놓여있다. 예수와 존프럼도 이항 대립적 관계에 놓여있고, 기독교와 샤마니즘,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가 사라져가는 영국과 인구의 4분지3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미국, 살인률이나 자살률이 높은 미국과 상대적으로 이런 비율이 낮게 나온 유럽국가들, 캐나다, 호주도 이항 대립적으로 등장한다.

4. "길 위의 인간" : 왜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가 현실에서 폭력을 정당화하는가?

제 4부에서는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가 현실에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모든 종교는 다 공통점이 있으며 이슬람의 시아파에도 기독교 교리와 비슷한 고난과 부활, 사후 세계관이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교회의 독선은 배경을 무시한 근본주의적 성경해석에서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에 기독교를 퍼뜨린 미국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모든 종교를 인정할 때 독선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자신이 배우고 체험한 것이 진리의 한 부분임을 깨달을 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표 4. 4부 "길 위의 인간" 서사 분석

등장 인물	이슬람 여성들, 시아파 성직자	프랑스 박물관장	김경재(교수), 배철현(교수)	김덕기(교수),김경재(교수)
유형	신을 향한 인간의 믿음을 언급한 사람들	종교적 관점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을 부인하는 사람들	한국 기독교의 근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문제점 지적
발화 내용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		기독교에 영향을 준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한국 기독교에 대한 설명 및 비판
이항 대립 구조	-자신의 종교만 진리를 가졌다고 믿는 사람, 독선적 이론과 교리로 세뇌된 사람 vs 종교의 다원성을 주장하는 사람, 우리 시대의 열린 사람 -기독교의 예수 vs 이슬람 시아파의 이맘자먼 -기독교 vs 조로아스터교			

4.1 등장인물의 유형과 발화 내용 분석

등장인물은 아슈라 절기에 나타나 기도하는 이슬람 여성들, 시아파 성직자, 프랑스 박물관장,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 배철현 종교학과 교수, 김덕기 신학과 교수 등이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슬람 시아파의 이맘 후세인이 살해당한 것을 재현하면서, 그를 애도하는 아슈라 절기 행사를 보여준다. 아슈라의 날을 맞아 모임을 갖는 이슬람 여성들은 이맘에게 삶의 평안과 개인의 소망을 기도한다.

세예드 호세이니(이슬람 시아파 성직자)는 시아파 이슬람에서 예수는 살아서 승천해 이맘과 함께 재림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한다. 이후 내레이터는 이맘을 애도하며 기도하는 시아파무슬림과 예수께 기도하는 기독교인,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 타나섬 사람들 모두 종교는 다르지만 신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같다고 결론짓는다.

이후 취재진은 네안데르탈인의 유골이 발견된 프랑스의 도르도뉴 지방을 찾아가 사체 위에 돌을 올려놓은 네안데르탈인의 무덤을 주목한다. 장 자크 클레에메를르(프랑스 박물관장)는 사체위에 돌을 올려놓는 네안데르탈인의 매장하는 관습에 대해 실용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상징적으로는 그 시대 사람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종교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후 장면은 2007년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개신교의 대규모 선교행사로 옮겨진다. 취재진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도 중에 싸워야 할 대상으로 나타나는 사탄의 개념에 대해 주목한다. 김경재 교수(한신대 명예교수)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이라고 단언한다.

배철현 교수(서울대 종교학과) 도 구약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라 개념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사탄이란 존재는 악마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 시대에 유대인에게 영향을 끼쳐 신약성서에도 그 개념들이 핵심사상으로 유지됐으며 이것이 이슬람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덧붙인다.

취재진은 한국 기독교에 영향을 준 것이 미국의 근본주의라고 말한다. 여기서 취재진은 처음 한반도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 중에는 성서를 그대로 믿고 종말과 천국을 강조했던 복음주의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김덕기 교수(대전신학교 신약학)는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기독교를 전파할 당시 미국에서는 성서를 문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당시 19세기에 진화론과 성서를 역사적으로 비평하는 사조로부터 기독교를 방어하려 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오로지 선교를 통하여 종말을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고 덧붙인다. 취재진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대해 취하는 배타적 태도는 성경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김경재 교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배경을 거두절미하고 그 말씀을 절대적인 교리 문구로 탈바꿈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다른 종교와의 소통을 위해서 유일신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어떤 문명의 신이거나 종교의 경전에 독점된 신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유일신을 증언하는 역사적 형태라고 깨달을 때 종교간의 독선과 독단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4.2 이항대립 분석

기독교의 예수와 이슬람 시아파의 이맘, 사후세계를 믿는 종교성을 가진 기독교와 네안데르탈인, 기독교와 조로아스터교, 한 특정 종교가 진리를 갖고 있다면 다른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없고 부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 시대의 열린 사람들이 대립구조로 나타난다.

V. 결론 및 함의

저널리즘 미디어는 어떤 범위에서 종교를 다룰 수 있는가 ? 미디어는 환경감시의 차원에서 종교의 일탈행

위나 종교가 사회의 건전한 풍속 또는 도덕률을 해치는 사례는 당연히 보도해야 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사이비 종교가 범람하는 현실에서 종교 재단이나 특정 종교 지도자에 대한 고발은 언론의 당연한 사명이자 역할이다[44].

종교의 교리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가 ? 문화유산 전수가 미디어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미디어의 종교 보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종교에 대한 진실된 정보와 지식을 알림으로써, 대중들에게 종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안목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종교 간에 간접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오해로 말미암은 종교 마찰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종교 보도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종교를 그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종교 내부 여러 분파에 대한 소개와 그 교리 설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저널리즘의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정통 교리뿐만 아니라, 그 외 교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웨스터스탈이 객관성의 하위개념으로서 제시한 사실성(진실성, 관련성)과 불편부당성(균형성, 중립성)을 고려할 때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는 미디어를 통해 다뤄질 수 있고 다뤄져야만 한다. 다시 말해, 종교의 양상이 사회의 규범과 윤리에 어긋날 때, 저널리즘 미디어가 이를 이성의 잣대로 논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미디어의 문화전수 역할 측면에서 바라보아도 그렇다. 더군다나 종교가 사회의 공적 영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오늘날, 미디어가 종교를 다루는 정당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문을 품지 않는다.

종교의 교리를 다룰 수 있다면 서울방송의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의 경우는 무엇이 문제이었나 ?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주로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다루어졌다. 이 두 종교는 그들의 진리가 지닌 보편성을 강조하고, 문화적 경계와 언어적 차이를 넘어 모든 인류가 그들의 구원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적극적인 선교를 펼친다. 따라서 두 종교는 세계 여러 곳곳에서 빈번히 충돌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다큐멘터리는 종교간의 소통을 그 기획 목표로 두고 있다.

우선 4부로 구성된 다큐멘터리를 살펴보자. 우선, 제1부에서 한국 개신교를 나타내는 표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개신교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내러티브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첫째,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집단과 부인하는 집단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즉 개신교 교인의 표상으로는 자신의 자녀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도록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구원”이라는 단순한 구호만을 외치는 거리의 전도자, 혹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두 명이나 목숨을 잃고 돌아온 개신교회의 선교단의 비통한 귀국 장면 등이 제시된다. 사회통념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신교의 일부 양태들이 나타난다. 반면, 예수의 신성과 그 역사적 실체를 부인하는 학자들은 차분하게 여러 사료를 인용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펼친다. 또한, 이들을 주제로 잡은 화면 구성은 균형이 잡혀 있어, 개신교의 표상을 제시한 경우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항 대립 구조로는 예수의 신성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 신성을 믿는 사람들은 무식하고 비이성적인 인상을 주고 있고 반면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배운 학자의 인상을 준다.

제 2부에서는 예수를 모하마드와 이항 대립으로 보고 있다. 예수도 이슬람교에서 선지자로 인정받지만 마지막 선지자인 모하마드가 더 권위를 가진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예수가 이항 대립이 되며 이슬람의 관점이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한다. 또한 선교하다가 살해당한 기독교인들과 끝까지 싸우는 탈레반을 이항대립시켜서 남의 나라에 가서 선교하다가 죽은 기독교인들보다 끝까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운는 탈레반이 강해 보인다.

제 3부와 제4부에서는 여러 종교의 공통점을 소개하면서, 기독교 선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제 4부에서 자신의 종교만 진리를 가졌다고 믿는 기독교인들과 종교의 다원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항 대립으로 나눠져 구원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이 독선적 이론과 교리로 세뇌된 사람들과 타종교의 구원을 인정하는 우리시

대의 열린 사람이 대비되어 나타난다.

이 종교 다큐멘터리의 가장 큰 불균형은 대립되는 두 종교를 소개하면서 한 종교를 다른 종교의 관점으로 조명했다는 점이다. 제 1부에서 신성이 부인된 기독교의 예수는 제 2부와 제 4부에서 이슬람교의 예수로 나타난다. 코란에 의하면, 선지자인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히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다.

미디어의 객관성을 염두에 둘 때, 이 다큐멘터리에 가장 많이 등장한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각 종교의 입장에서 다뤄져야 했다. 처음부터 이 다큐멘터리는 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제작 동기중의 하나는 권력화된 기독교, 즉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독선과 배타성으로 사회의 다른 부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종교 권력에 대한 비판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제작자들은 <신의 길 인간의 길>이 기존 종교 관련 프로그램과 다르게 종교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었다고 진술했다. 이것은 이 프로그램이 개신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신성을 문제 삼은 점을 말한 것이다. 이런 접근 방식은 한국사회의 지형을 다원주의로 규정할 뿐 아니라 종교 영역에서도 다원주의적 질서는 지켜지고 지향해야 할 가치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제작진은 설명했다.

미디어가 종교의 문제를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다룬다고 해서 각 종교의 특징마저 무시할 수 있는 것인가? 다양한 종교적 입장을 가진 수용자들을 위한 공중파 방송이 어떤 특정 종교를 다룰 때 우선 정통 교리를 먼저 알리고 그 다음으로 다른 관점에서 본 교리들을 소개하는 것이 공정하다. 그러나 <신의 길 인간의 길>에서는 기독교 내 정통 교리와 달리, 성경을 신화의 짜깁기로 해석하는 주장이 자주 나온다. 이는 미디어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히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다.

방송 저널리즘과 구별되는 PD 저널리즘은 사실 이면의 진실에 대한 접근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지만 제작자의 주관이 때때로 과도하게 개입되어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함께 받고 있다.

탐사 저널리즘의 한 형태인 PD 저널리즘 역시 저널리즘의 객관보도 원칙을 무시할 수 없다. 시사 다큐멘터리의 형태를 띤 PD 저널리즘이 시청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다큐멘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성을 토대로 재현된 영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의 교리는 인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저널리스트가 그 교리를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이다. 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 내부에서도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한 개신교 학자는 사이비 이론과 이단교리에 기초해 기독교를 새롭게 조명해보겠다는 기획이 <신의 길 인간의 길> 잘못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45].

다원주의란 한 국가 안에 여러 다른 민족들이 여러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공존하는 사회의 조건 [46]이라는 정의가 말해주듯이 각자의 종교나 의견이나 사상이 있는 그대로 존중되는 사회를 말한다. 미디어가 종교를 보도함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깊은 이해와 세심한 배려가 마땅히 요구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1] B. Meyer and A. Moors, *Religion, Media and the Public Sphere*, Indiana University, 2006.

[2] P. L. Berger, "Reflections of the Sociology of Religion Today," Sociology of Religion, Vol.62, No.4, pp.443-454, 2001.

[3] 류대영, "세속화 이론과 미국 종교사", 종교와 문화, 제8호, pp.21-41, 2002.

[4] D. A. Stout, Encyclopedia of Religion, *Communication and Media*, Routledge, 2010.

[5] 김성건, "세계화와 이슬람 근본주의 및 부흥운동", 한국종교학회, 제31집, pp.103-133, 2003.

[6] S.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Touchstone, 1996.

[7] J. W. Carey, "Preface," Journal of Media and Religion, Vol.1, No.1, pp.1-3, 2002.

[8] 장석만, "매스미디어와 종교: 텔레비전은 종교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사회비평, 제33호, pp.159-177, 2002.

[9] 김대중, "記者의 세 가지 터부(taboo)", 조선일보, p.A34, 2011. 3. 8.

[10] 주영재, "종북좌파 국회 보내선 안돼" 기독교 정당 창당, 경향신문, p.26, 2011. 9. 21.

[11] 황춘화, "샘물교회 피랍 희생, 국가 배상책임 없어", 한겨레, p.10, 2011. 4. 26.

[12] PD 저널, 2008.7.16

[13] PD 저널, 2008.6.30

[14] 신상목, "[이슈분석] SBS '신의 길 인간의 길'", 국민일보, p.30, 2008. 7. 11.

[15] 조현, "SBS 다큐 '신의 길 인간의 길' 논란", 한겨레, p.20, 2008. 7. 11.

[16] 교회 언론회, '신의 길 인간의 길' 공정성 유권해석 의뢰, 국민일보, p.30, 2008. 7. 4.

[17] PD 저널, 2008.8.26.

[18] A. McKinnon, "Sociological Definitions, Language Games, and the 'Essence' of Religion," Method & Theory in the Study of Religion, Vol.14, No.1, pp.61-83, 2002.

[19] C. Hyman and P. Handal, "Definition and Evaluation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Items by Religious Professionals: A pilot study,"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Vol.45, No.2, pp.264-282, 2006.

[20] 김성건, "세계화와 이슬람 근본주의 및 부흥운동", 한국종교학회, 제31집, pp.103-133, 2003.

[21] 윤이흠, "종교 갈등의 현실과 화해의 모색", 현대사회, 제25호, pp.56-67, 1987.

[22] 이원규, "종교적 확산과 문화갈등: 기독교 선교의 문제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제32권, 제1·2호, pp.59-82, 2008.

[23] 김재준, "한국의 재래종교와 기독교", 기독교 사상, 제2권, 제8호, pp.68-75, 1958.

[24] 통계청, 2005

[25] 이은윤, "종교보도의 실태와 애로", 신문과 방송, 196호, pp.98-100, 1987.

[26] 장석만, "매스미디어와 종교: 텔레비전은 종교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사회비평, 33호, pp.159-177, 2002.

[27] S. M. Hoover and K. Lundby, *Rethinking media, religion and culture*, Thousand Oaks, CA : Sage 1997 ; Forbes, B. & Mahan, J., *Religion and popular culture in America,* Berkeley, C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 Clark, L.S. *Religion, media and the marketplace,* Piscataway, NJ : Rutgers University Press, 2007 etc., 박진규 "미디어의 종교담론 생산과 그 정당화: TV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2권, 제6호, pp.110-148, 2008.

[28] D. A. Stout and J. M. Buddenbaum, "Genealogy of an Emerging Field: Foundations for the study of media and religion," Journal of Media and Religion, Vol.1, No.1, pp.5-12, 2002.

[29] S. M. Hoover, *Religion in the News : Faith and Journalism in American Public Discourse,* Thousand Oaks, CA: Sage 1998, 박진규 "미디어의 종교담론 생산과 그 정당화: TV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2권, 제6호, pp.110-148, 2008. 재인용

[30] 최민재, "PD 저널리즘 프로그램 영상구성의 객관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9권, 제1호, pp.198-226, 2009.

[31] 김연식, 윤영철, 오소현, "PD 저널리즘에 대한 제작진의 인식과 제작관행: MBC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19권, 제4호, pp.79-124, 2005.

[32] 김연식, "방송 저널리스트의 공정성 인식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3권, 제1호, pp.161-186, 2009,

[33] 민병현, 백선기, "TV 시사다큐멘터리 영상구성 방식과 사실성 구현에 관한 연구: KBS, MBC, SBS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3권, 제3호, pp.267-295, 2009

[34] 이민웅, “방송의 공정 공평보도”, 신문과 방송, 20제1호, 1987.
[35] 윤영철, “TV 저널리즘의 변화와 방송의 공정성”, 한국언론학회-KBS 공동심포지움 제3차언론학포럼: 전환기의 한국형 방송저널리즘, pp.87-106, 2004.
[36] 김세은, 이상길, “서유럽 방송의 공정성 원칙과 규제”, 방송연구, 제67호, pp.69-112, 2008.
[37] 강태영, “텔레비전 보도와 공정성 기준”,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pp.1-40, 2004.
[38] D. McQuail, *McQuail's Mass Communication Theory*, Sage, 2010.
[39] C. Figdor, “Objectivity in the News: Finding a way forward,”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Vol.25, No.1, pp.19-33, 2010.
[40] J. Westerstahl, "Objective News Reporting", Communication Research, Vol.10, No.3, pp.403-424, 1983. McQuail D. *McQuail's Mass Communication Theory*, Sage, 2010. 재인용
[41] F. S. Ron, *Ethics in Journalism*. Blackwell Publishing, 2008.
[42] J. Lichtenberg, "In Defense of Objectivity," Curran & M. Gurevitch, *Mass Media and Society*, pp.216-231. London: Arnold, 1991. McQuail D. *McQuail's Mass Communication Theory*, Sage, 2010. 재인용.
[43] 성낙인, “시사고발 프로그램과 반론권”, MBC PD수첩팀 (편), *PD수첩과 프로듀서 저널리즘*, pp.195-228, 나남출판사, 2000.
[44] 신국원, “신의 길, 인간의 참된 길”, 국민일보, p.26, 2008. 7. 11.
[45]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1994.

저 자 소 개

이 선 영(Sun-Young Lee) 정회원

▪ 현재 :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객원교수

<관심분야> : 저널리즘, 종교와 미디어